



발명특허 무료교육 사이트 오픈 ... “특허인재 양성 요람 된다”

인터넷을 통해 커다란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인프라를 통해 시공을 초월한 지식정보화 산업시대로 변모하면서 지식자산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최근 지적재산권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이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를 개설했다.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이 사이트를 소개한다.

글 / 신승철 기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종전의 물질위주에서 지식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하여 OECD는 ‘지식기반경제’로 정의했으며, 월드뱅크는 지식혁명을 통한 지식경제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지적재산전략의 변화를 모색해 내느냐에 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까운 일본은 현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2월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설치, 산업경쟁력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지난 85년에 산업경쟁력 재생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pro-patent’ 정책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반인은 물론 과학교사, 전문가 교육목표도 수용

무릇 지적재산권의 보호라 하면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예방이나, 현실적으로는 침해에 따른 구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권은 발명기술에 대하여 법적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한 판단 역시 기술적 내용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소송수행을 통해 권리침해 여부의 올바른 판단이 이뤄질 때 비로



한국발명진흥회는 최근 지적재산권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이트,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오른쪽은 이 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장면



소 국민들의 지적재산권 개발의욕은 증대되고, 이는 곧 산업에 응용돼 국가경제의 부흥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발명진흥회는 최근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사이트를 구축·오픈했다. 지식기반 산업시대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전문인재의 육성은 물론, 지재권 지식공유시스템의 확산을 통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발명인식 및 교육기회를 확대기 위해서다. 현재 일반인, 청소년, 학부모, 발명지도교사, 전문가,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50여개의 콘텐츠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일반인분야에서는 ▲ 특허와 실용신안 ▲ 의장과 상표 ▲ 특허출원방법 ▲ 특허관련 각종제도 ▲ 특허검색 ▲ 특허분석 ▲ 출원 및 심사절차 ▲ 특허청구범위 ▲ 침해대응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 전달해준다.

특허에 대한 기초지식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과정을 이용하면 된다. 전문가과정에서는 ▲ 디지털시대의 지

식재산권과 기업경영 ▲ e비즈니스 시대, 소프트웨어 특허의 관리전략 ▲ 특허명세서 작성 ▲ 의장법 ▲ 상표법 ▲ 특허법 등 고급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 변리사시험의 실전 적응능력과 문제풀이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자격증 과정과 더불어 ▲ 자라나는 발명꿈나무들의 창의력 함양교육과정인 청소년분야 ▲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돕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부모 분야 ▲ 발명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발명지도교사분야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인력개발부의 조아람 웹마케터는 “지적재산권 정보, 특허전자도서관, 특허 인터넷방송 등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교육 마케팅은 물론 MBA, 평생교육원 등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